

# 헌정 첫 대통령 파면·조기 대선...시진핑 中 권력 독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세월호 인양, 포항 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남 암살, 박근혜.

(광주일보 자료사진)

## 국내

- 1** 박근혜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 2**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위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3**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올해 초 김정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북한은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훈련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
- 4**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수능 일주일 연기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 5** '적폐청산'...국정원 댓글·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간인 사찰,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 등이 전방위로 진행됐다.

- 6** 사드 배치와 中 '보복'...한중 갈등과 봉합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 양국은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즈음 물밑 교섭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선 끝에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 7**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 폭 17년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8** 시민이 결정할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평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는 '요수'를 내놓았다.
- 9**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이후 수색 7개월간 객실 구역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과 조은화·허다운 양, 고장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됐다. 그러나 단원과 박영인·남민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학교 교의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 10**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계부채 1400조원 새 정부는 메가톤급 규제책이 담긴 8·2 대책을 내놓았다. 8·2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뻘뻘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

## 국외

- 1**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에 긴장하는 국제사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에 미국은 동맹국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은 국제질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고립을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입지를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착수했다.
- 2** 시진핑 중국 권력독점...대국 향한 2막 출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린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에 편입시켰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축근을 대거 기용해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닦았다.
- 3** 가뭄·홍수·폭염...기후변화 재난에 지구촌 몰살 올해 초 아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와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지난 8월 말 인도 동부와 북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지역에 최악의 홍수가 찾아와 1200명이 숨지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여름 남유럽에서는 섬세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수일간 지속돼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앞서 1월에는 독일 북부, 러시아 모스크바 등은 폭설과 강추위로 고역을 치렀다.
- 4** 트럼프-김정은, 북핵 둘러싼 '희대의 말폭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자국 취재진을 만나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랑늑대'로 불렀다.
- 5** 유럽정치 중도기반 상실...좌우 양극화 따른 기성정치 침체 프랑스에서는 5월 '반(反)기득권'을 기치로 내건 신에에마뉘엘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성 정치를 대변하는 중도우파 공화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의 양당체제가 와해됐다. 독일에서도 9월 총선에서 기존 중도 정당들이 독점했던 표가 극우성

- 6** '미투' 확산...지구촌 여성들의 성폭력근절 붐기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터진 이후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가 확산됐다. 와인스틴이 수십 년간 배우 지망생과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할리우드 성폭력 파문은 배우 더스틴 호프만, 케빈 스페이시, 스티븐 시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졌다.
- 7** IS '칼리프국'가 수립 좌절...시리아-이라크서 패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목표인 '칼리프국가'(초기 이슬람 신정일치국) 수립이 좌절됐다. IS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정부군, 국제동맹군을 상대로 싸우는 한편, 서방 주요국가에서 테러 공격을 단행하며 악명을 떨쳤지만 올 한 해 주요 거점에서 패전을 거듭하며 와해됐다. IS는 지난 7월 주요 거점 도시 이라크 모술에서 약 3년 만에 쫓겨났다.
- 8** 임기 내내 트럼프 정부 혼돈...러시아 내통설'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임기 첫 해 내내 '러시아 내통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등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악플러'에게 돈을 주고 소셜미디어에 악성 댓글을 달게 하는 등 방화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의 회화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 9** 북 김정은 이북형 김정남의 국제공항 신경작용제 암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북형인 김정남이 각각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인 여성 2명으로부터 화학무기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공격을 받아 살해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의 배후가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굳어졌다. 북한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10** 사우디-이란 패권 다툼...중동정세 불안 중동의 패권을 둘러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다툼이 급격히 악화됐다. 종교적 라이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영수로서 양국의 대립이 이슬람 급진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몰락을 계기로 다시금 본격화했다.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 다툼이 시리아, 예멘에 이어 레바논으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면서 고조하는 역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